

핵심·주요과제 중심 건축 새해 종무기관 예산 218억

“한국불교 세계화 새 이정표”

국제선센터 개원...조계사 ‘부지확보’ 큰 역할

특별회계 105억 의결...호계원장 법등스님 재선출

제185회 정기총회 폐회

내년도 종단 예산이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는 지난 16일 속개된 제185회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불기 2555(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18억 4080만 4000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05억 4102만 원도 통과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제 33대 집행부의 ‘종단발전 4개년 계획’ 핵심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종단의 기본 유지업무와 기관운영비는 동결하거나 삭감했다”고 세출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했다.

지난 9일 개원식을 봉행한 제15대 중앙총회는 10일부터 15일까지 종정(宗政)특별감사와 중앙종무기관 및 유관기관 감사를 진행한 후 16일 오전 속개되어 상정된 안건을 대부분 처리하고 폐회했다.

▶다음호 상세 보도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부의 종교차별 및 국내종교평화 파괴행

4대 특위 구성

- 종교차별 종식
- 선암사 문제 해결
- 규제 법령 제·개정
- 인사심의 특위

위 종식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경스님) △순천 선암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스님) △불교규제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황적스님) △인사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지홍스님)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히 인사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중앙총회에서 추천·동의·선출하는 인사에 대한 자격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만료와 사퇴 등으로 공석이 된 각종 종현·종법 기구의 위원들을 선출했다. 종진·근일·암도·월주스님이 원

로의원으로 추천되었다. 원로의원은 중앙총회에서 추천된 스님들을 대상으로 원로회의에서 최종 선출한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호계원장에는 현 원장 법등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어 법규위원, 초심호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직능대표선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을 선출했다. 대부분 사전 조정을 거쳐 투표 없이 소임자를 결정했지만, 종립학교관리위원은 투표를 실시해 진오·성행·월공·오심·제정·탁연스님을 선출했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군중특별교구법 개정안, 교육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제15대 중앙총회 개원과 함께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산적한 종단 현안을 대부분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정특별감사 기간을 제외하면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안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한국전통문화와 한국불교 간화선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중심도량이 될 국제선센터가 지난 15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문을 열었다. 사진은 개원식 직후 열린 현판식.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스님 임명 14면

한국전통문화와 한국불교 간화선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중심도량이 될 국제선센터가 문을 열었다.

▶관련기사 3편

국제선센터(주지 현조스님)는 지난 15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국제선센터 2층 법당에서 개원식을 봉행했다. 개원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스님과 종하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 호계원장 법등스님, 교육원장 현승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백창기 천구형장, 주한 외교사절, 지역주민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건물을 설계한 김기천 국민대 교수, 허종 삼환기업 대표, 이성구 전 양천구의회 의장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고 축하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원사를 통해 “수년간(공사) 소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협조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한국불교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종교를 떠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도량’이 되

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1990년 종교 부지를 확보한 현근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계사 주지 스님들과 조계사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박수를 보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국제선센터의 개원은 뜻 깊은 일”이라며 “2013년 개최하는 세계종교지도자 포럼도 국제선센터 설립 목적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선규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전통불교문화인 참선 및 템플스테이가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한국문화의 대표를 향해 최고의 문화브랜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선센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한국 전통의 문화 및 불교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전통문화 소통의 공간, 상생의 공간으로 발전해 한국 정신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인 명소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불교신문 사장 수불스님

주간에 장적스님...16일 임명장 수여

불교신문 신임 사장에 서울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임명됐다. 불교신문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사장에 수불스님을, 주간에 미디어 홍보담당 총무원장 특별보좌관 장적스님(서울 원통사 주지)을 임명했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총



수불스님



장적스님

무원장 스님은 “강력한 의지로 불교신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불교신문을 모태로 불교 종합미디어 출판을 위해 사장 스님과 주간 스님이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임 사장 수불스님은 “종단 발전과 총무원장 스님의 취지에 부합하고 화합, 소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불교신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본지 편집국장(직무대행)에 안직수 차장, 업무국장(직무대행)에 김성동 부장을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후, 총무원장 스님은 “올해 총무원의 지원금 없이 구성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불교신문이 반세기를 돌고 있는 임장에서 좀 더 좋은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辭令

안직수 命 편집국장 직무대행
김성동 命 업무국장 직무대행
2010년 11월 16일자
불교신문사

日공내청 ‘150종 1205책’ 돌아온다

14일 ‘한일 정부 협정’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의 문화재 환수 노력으로 일본 공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의 도서가 우리나라로 반환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칸 나오토 일본 총리 간에 조선왕조의궤를 포함한 150종 1205책의 반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한·일 양국의 국내적 절차를 완료하고 상대국 정부에 이의 사실을 통보하면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을 기준으로 발효되며, 도서 반환절차는 한·일 간의 논의를 거쳐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는 <조선왕조의궤> 81종 167책을 비롯해 기타 규장각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 등 총 150종 1205책으로, 특히 <조선왕조의궤>는 지난 2006년부터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환수활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제12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2010년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

• 일시 | 불기2554(2010)년 12월 2일(목) 14:00~20:00 • 장소 |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

PROGRAM

제1부 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14:00~17:00)

- 주제 :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 발제1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의 일반 현황과 과제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의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프로그램 연구 (조성희,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3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직무인식과 실태 (이혜수, 금강대학교 초빙교수)
 - 발제4 불교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종교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제2부 : 자비나눔 대법회 (17:30~18:30)

- 개회
- 자비나눔유공자 시상 : 조계종총무원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특별상
- 치하의 말씀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축하의 말씀
- 영상보고 : “한국불교 자비나눔현장 2010”
- 축하공연

제3부 : 만찬 (18:30~20:00)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후원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외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TEL. 723-5101~2)

후원계좌 : 농협 053-01-263323(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6층 Tel.(02)723-5101~2 Fax.(02)739-2047 www.mahayana.or.kr

